

韓 · 中 · 日 FTA의 推進現況과 戰略에 관한 研究

—家電産業을 中心으로—

金誠恂* · 金亮希**

Ⅰ 요약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한중일 3국간의 FTA추진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으나, 여기에는 한·중·일 FTA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독특한 유통구조 및 유사한 수출 제품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고 날로 심화되는 공급과잉 문제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기업의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전제품의 조립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한층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전산업에서의 전략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대일 수출 확대보다는 한국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산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충족을 통해 수입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3국간의 가전산업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서도 3국 간 협력이 필수이며, 이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국은 정부측면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단체, 기업들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간의 상호 이해와 업무상의 왕래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3국 대학들간의 학술회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핵심주제어 : 한중일 FTA, 전자산업, 장애요인, 추진전략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sskim@dankook.ac.kr

**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I. 序 論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급진적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시도된 국제무역의 확대노력 등이 그 원동력이 라 하겠다. 이에 따라 각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공조의 노력들이 활 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를 위한 접근법은 WTO를 위시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접근법과 특정지역의 인접국들이 무역장벽 철폐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수행하는 지역접 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적 접근법을 국민경제의 생산·교환·소비의 민간경제기능과 정부당국의 조정기능을 조화·통일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경제통합이라고 한다. 경제통합 은 특혜무역클럽에서부터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서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는 경제동맹의 순서로 강도를 더해간다.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EU와 NA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 국가 간 입 장 조율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중·일 FTA 체결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3국간의 경쟁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국의 무역 교역 현황과 가전산업의 교역 현황으로부터 3국간 FTA체결 시의 예상효과와 3국간 FTA추진에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전략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II. 韓·中·日 3國의 貿易構造 分析

1. 3국의 역내수출입 규모

2009년의 국가 간 수출규모를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총 수출액 은 3,635억 달러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867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3.8%를 차지하였다.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218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5.9%를 차지하고 한국의 중국과 일본으로 의 수출규모는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중국의 경우 총 수출액은 12,004억 달러로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536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4.4%,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972억 달러로 총 수출총액의 8.1%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규모는 전체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표 1〉 한·중·일 3국간 역내수출총액 및 비중 추이 (200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기준국	수출총액	한국		중국		일본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국	363,534	-	-	86,703	23.8	21,771	5.9
중국	1,200,362	53,630	4.4	-	-	97,209	8.1
일본	593,130	48,301	8.1	112,085	19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일본의 2009년 총 수출액은 5,931억 달러로 중국으로의 수출총액은 1,121억 달러로 전체의 19%를, 한국으로의 수출총액은 483억 달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일본의 한국과 중국으로의 수출규모는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수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국가 간 수입규모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총 수입액은 3,231억 달러로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542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16.5%를 차지하였다.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492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의 32.1%에 달한다.

〈표 2〉 한·중·일 3국간 역내수입총액 및 비중 추이 (2009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기준국	수출총액	한국		중국		일본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한국	323,085	-	-	54,246	16.8	49,428	15.3
중국	1,000,578	102,125	10.2	-	-	130,749	13.1
일본	562,427	22,442	3.9	162,294	28.9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중국의 경우 총 수입액은 10,006억 달러로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1,021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10.2%,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1,307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중

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의 23.3%를 차지한다.

일본의 2009년 총 수입액은 5,624억 달러로 중국에서의 수입총액은 1,623억 달러로 전체의 28.9%를, 한국에서의 수입총액은 224억 달러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일본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중국에서의 수입이 월등히 높다.

이상으로부터 수입의 경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입총액의 28.9%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3국의 무역의존도 분석

일국의 GDP에 대한 수출입액 비율로 정의되는 '무역의존도 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 개방 정도를 대변하는 아주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수는 한 나라의 대외 무역이 국민경제 중에 차지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표 3>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한국의 수출, 수입 및 무역의존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2008년에는 최고수치인 92.3%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상승폭이 한국보다는 크지 않지만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중국과 한국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46.3%, 한국은 85.8%를 기록하였지만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2.9%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이고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낮다.

<표 3> 한·중·일 3국의 무역의존도 추이

(단위 : %)

년도/나라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05	33.7	33.9	13.1	30.9	29.4	11.3	64.6	63.4	24.4
2006	34.2	36.6	14.9	32.5	29.9	13.3	66.8	66.6	28.2
2007	35.4	37.6	16.0	34.0	29.5	14.2	69.4	67.1	30.1
2008	45.4	33.0	16.02	46.9	26.2	15.5	92.3	59.2	31.6
2009	45.4	25.2	11.7	40.3	21.0	11.1	85.8	46.3	2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주 : 일본의 수치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의 통계정보를 토대로 당해 년 엔화 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III. 韓·中·日 3國의 家電産業 構造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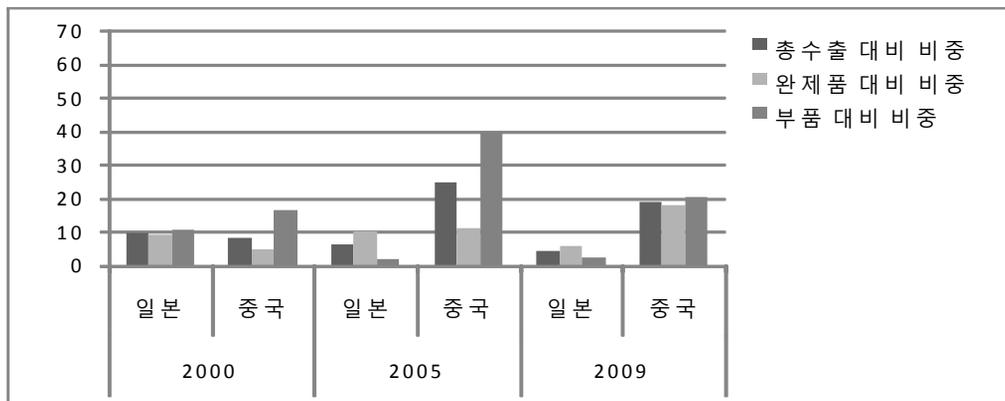
제조업 중에서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은 한중일간 역내교역에서 한국과 일본 수출의 3/4, 중국 수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6개 산업 중에서는 전자산업이 각국에서 역내수출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산업이고 기타 산업은 역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 중에서도 가전산업은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으로 FTA체결시 우리가 가장 빨리 경제적 변화를 느낄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1. 한국의 대중·대일 교역구조

10년 전 한국은 대중 가전산업 교역에서 완제품과 부품모두 가전 무역흑자(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중 투자의 확대에 따라 완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가전 완제품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대중 가전산업 무역흑자규모도 가전산업 총 무역흑자의 2%로 감소하였다.

한국 가전산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8.1%에서 2009년에는 19.2%로 크게 상승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위상도 2000년 3위의 수출대상국에서 2007년, 2008년에는 1위를 차지하고 2009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한국 가전산업 수출 대비 중국과 일본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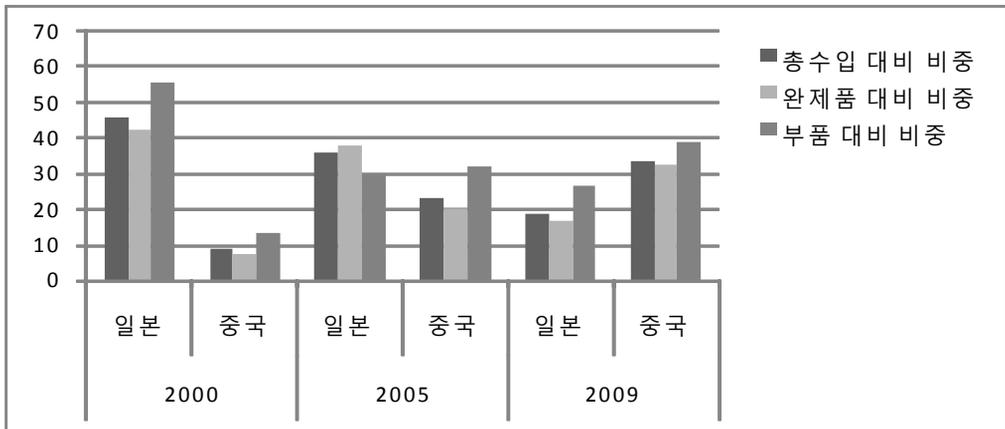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한국 가전산업 총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8%에서 2009년 현재 4.4%로 감소하였다. 또한 완제품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이고, 부품 수출에서의 비중은 2.3%로 완제품 비중이 높다. 반면 완제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 부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7%로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수입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은 모두 한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7%, 32.8%이다. 부품수입에서의 비중은 각각 24.9%, 38.7%로서 훨씬 높다.

[그림 2] 한국 가전산업 수입 대비 중국과 일본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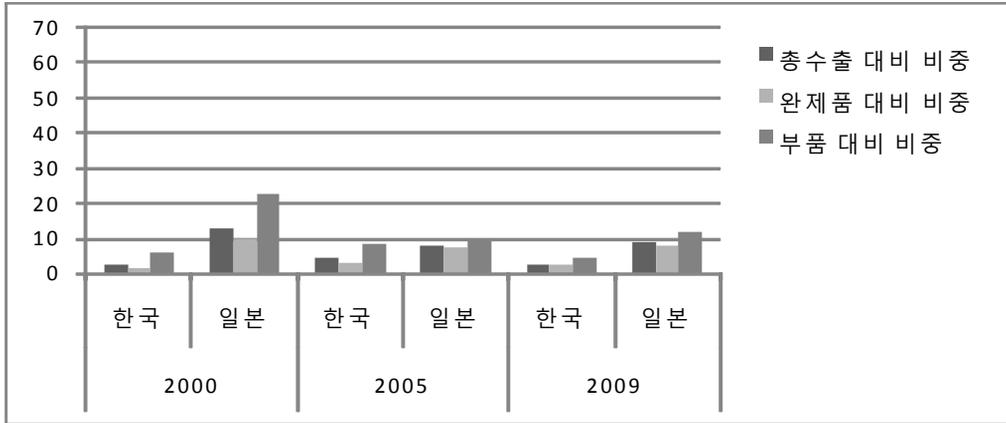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2. 중국의 대한·대일 교역구조

중국의 가전산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2.5%에서 2009년 2.7%로 큰 변화가 없다. 한편 일본이 중국의 가전산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7%에서 2009년의 8.7%로 낮아졌다.

완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2.3%이고, 부품 수출에서의 비중은 4.3%이고 일본의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이다. 즉 중국의 가전 완제품과 부품 총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가전산업 총 수출 대비 비중에 비해 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3] 중국 가전산업 수출 대비 한국과 일본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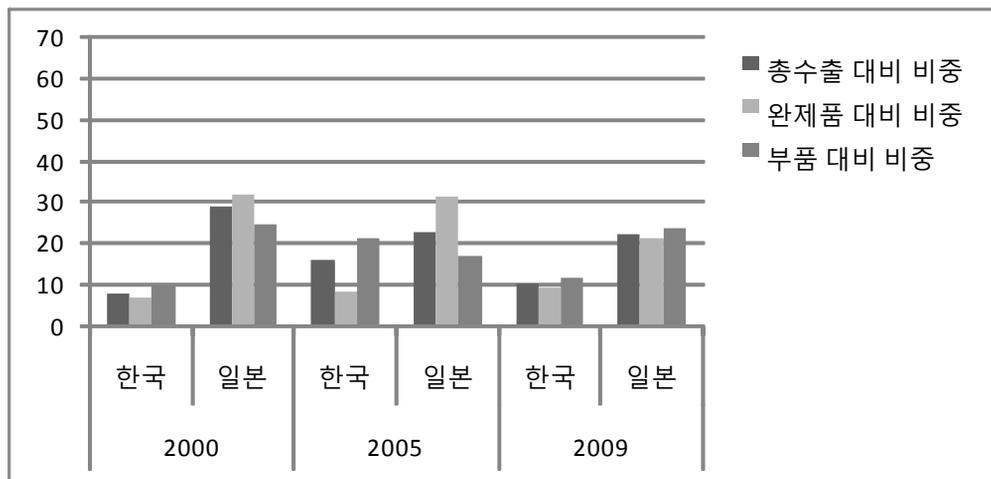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중국 가전산업 총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8.0%에서 2009년 10.1%로 다소 증가하였다. 일본의 비중은 2000년 27.8%에서 2009년의 22.3%로 하락했다.

완제품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이고 부품 수입에서의 비중은 11.6%이다. 한편 일본이 차지하는 완제품의 비중은 21.3%, 부품의 비중은 23.9%이다.

[그림 4] 중국 가전산업 수입 대비 한국과 일본의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즉 중·일 간 가전산업 교역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완제품 중심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가전 완제품 수입에서 한·일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가전부품 수입에서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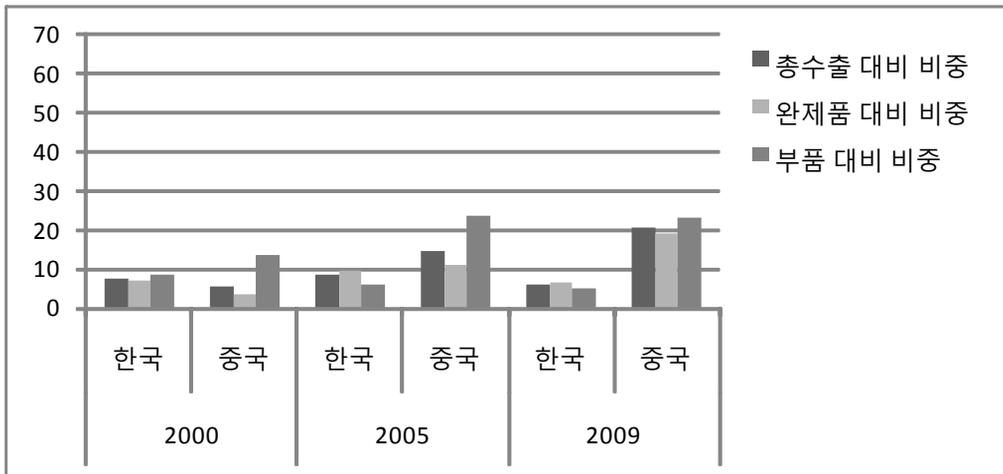
3. 일본의 대한·대중 교역구조

일본의 가전산업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7.5%에서 2009년의 6.1%로 하락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3%에서 2009년 20.4%로 상승하였다.

완제품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이고 부품 수출에서의 비중은 4.9%이다. 한편 중국이 차지하는 완제품의 비중은 19.2%, 부품의 비중은 23.0%이다.

또한 일본은 가전산업 수출의 1/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가전산업 교역 대상국 으로서의 중국 위상은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가전산업 완제품과 부품 교역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부품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완제품 수출 비중이 부품 수출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5] 일본 가전산업 수출 대비 한국과 중국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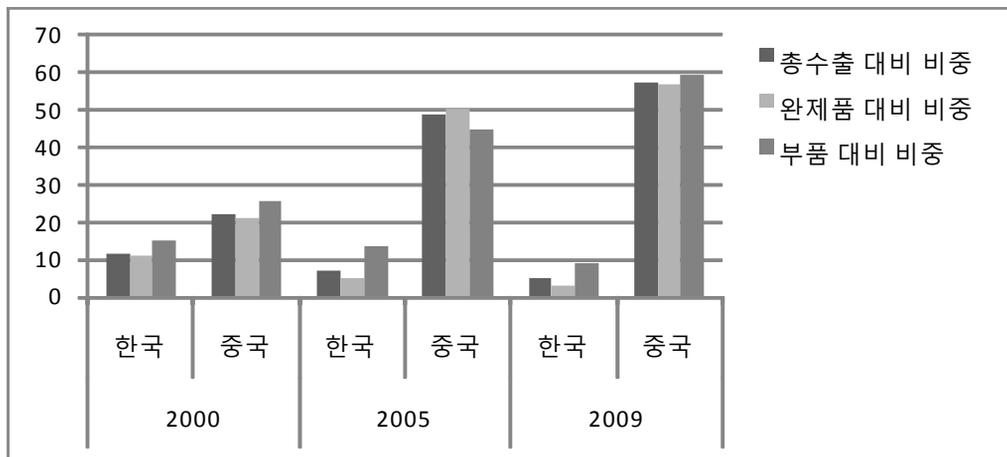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한편 일본 가전산업 총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1.8%에서 2009년 4.8%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일본의 가전산업 교역 파트너로

서 한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2.3%에서 2009년의 57.6%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일본 가전산업은 수출에 이어 수입에서도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완제품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이고 부품 수입에서의 비중은 9.2%이다. 한편 중국이 차지하는 완제품의 비중은 57.0%, 부품의 비중은 59.3%로 증가하여 일본의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6] 일본 가전산업 수입 대비 한국과 중국의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4. 3국의 경쟁력비교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무역특화지수} = \frac{X_i - M_i}{X_i + M_i}$$

X_i : 특정국 i상품의 수출량

M_i : 특정국 i상품의 수입량

로서 지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정도가 크고 국제경쟁력이 강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정도가 크고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 한다²⁾.

한국 가전산업의 대 세계 무역 특화지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제품이 0.11이고 부품은 0.62로 완제품보다 부품의 수출특화정도가 강하다. 완제품에서는 회전기기, 부품에서는 음향부품의 수출특화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완제품에서 가정용기기와 음향기기는 수입우위라고 볼 수 있다.

<표 4> 한·중·일 가전산업의 무역특화지수 (2009년 기준)

(단위 : %)

	한국 대세계	중국 대세계	일본 대세계	한-중	한-일	일-중
완제품	0.11	0.67	0.05	-0.18	-0.39	-0.46
회전기기	0.77	0.95	-0.88	-0.49	-0.16	-0.98
가정용기기	-0.13	-0.01	0.32	0.16	-0.57	0.27
난방·전열기기	0.11	0.98	-0.81	-0.84	0.83	-0.98
영상기기	0.14	0.62	0.34	-0.36	-0.28	-0.24
음향기기	-0.52	0.69	-0.68	-0.75	0.08	-0.86
조명기기	0.05	0.77	0.12	0.23	-0.53	-0.38
부품	0.62	0.34	0.16	0.39	-0.47	-0.3
회전기기 부품	0.49	0.75	0.07	0.19	0.09	-0.18
가정용기기 부품	0.08	0.39	0.29	0.39	-0.6	0
음향부품	0.74	0.18	0.21	0.55	-0.59	-0.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일본재무성 <http://www.customs.go.jp/>

중국 가전산업의 대 세계 무역 특화지수는 완제품이 0.67이고 부품이 0.34로 완제품의 수출특화정도가 강하다. 그 중 완제품의 경우 가정용기기를 제외한 모든 완제품이 수출특화정도가 높은 편이고 부품의 경우 회전기기 부품의 수출특화정도가 가장 높다.

일본의 가전산업의 대 세계 무역 특화지수는 완제품이 0.05이고 부품이 0.16으로 수출특화정도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약하다. 완제품에서 회전기기, 난방·전열기기, 음향기기는 수입우위이고 부품에서 회전기기 부품의 수출특화정도가 가장 약하다.

한국의 대중 가전산업 무역특화지수는 완제품이 -0.18로 수입우위이고 부품은 0.39로 수출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일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완제품과 부품 모두 수입특화정도

2)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중 가전산업 무역특화지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완제품과 부품 모두 수입특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한·중·일 가전산업의 주요제품별 무역특화지수 (2009년 기준)

(단위 : %)

	한국 대세계	중국 대세계	일본 대세계	한-중	한-일	일-중
완제품						
냉장고	0,95	0,89	-0,91	0,27	-0,39	-0,98
세탁기	0,92	0,96	-0,97	0,23	-0,38	-0,99
PC	-0,14	0,99	-0,57	0,24	-0,39	-0,93
TV	0,58	0,91	-0,32	0,25	-0,37	-0,41
에어컨	0,66	0,99	-0,93	0,23	-0,36	-0,99
부품						
냉장고 부품	-0,33	0,35	0,57	-0,94	0,91	-0,46
세탁기 부품	0,96	0,72	-0,68	-0,04	0,5	-0,84
PC 부품	0,24	-0,22	-0,77	0,16	0,53	-0,83
TV 부품	0,64	0,72	-0,4	0,23	-0,39	-0,92
에어컨 부품	0,65	0,64	0,32	0,23	-0,39	-0,99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top/state/>

일본재무성 <http://www.customs.go.jp/>

주 : 일-중 무역특화지수는 일본의 대중 교역액 기준으로 산출

한편 한·중·일 가전산업의 주요제품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세계의 경우 완제품에서 냉장고, 세탁기의 수출특화지수가 높고, PC제품이 수입특화 상태이다. 부품에서는 세탁기 부품의 수출특화지수가 가장 높고 PC 부품의 수출특화지수가 가장 낮으며 냉장고 부품은 수입 특화 상태이다. 대중국의 경우 완제품의 전 품목에서 수출특화 상태지만 지수가 낮은 편이고 부품에서는 냉장고 부품과 세탁기 부품이 수입특화 상태이고 기타 제품의 부품은 수출특화 상태이다. 반대로 대일본의 경우 완제품의 전 품목이 수입특화 상태이고 부품에서는 냉장고 부품과 세탁기 부품은 수출특화이고 기타 부품은 수입특화 상태에 있다. 즉 한국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수입하고 있고 부품의 경우 PC 부품이나 TV 부품 등 첨단 기술의 제품은 중국에 수출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 대 세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제품의 수출특화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부품에서는 PC 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수출특화 상태이다. 반대로 일본의 대 세계의 경우 완제

품의 모든 제품이 수입특화 상태에 있고 부품에서는 냉장고 부품과 에어컨 부품이 수출특화 상태이고 나머지는 수입특화 상태에 있다. 또한 일본 대 중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완제품과 부품의 전 품목이 수입특화 상태에 있다. 즉 가전산업에서 일본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전제품의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일본국내에 수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韓·中·日 FTA의 豫想效果

1.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

FTA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또한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 및 수출을 특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경제효과에는 역내 무역창출, 무역전환과 역외 무역창출, 무역·생산·투자 편향, 투자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등이 있다.

이창재(2004)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본 국가연구진흥위원회, 중국 개발연구센터가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3국 회의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GDP는 1.29~4.73%, 일본은 0.3~0.16%, 중국은 0.03~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생산, 무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면에서 각국에 막대한 거시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간 자유무역보다는 3국간 자유무역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6> 한·중·일 FTA의 각국 GDP에 대한 영향

구 분	GDP에 대한 영향
중 국	0.03 ~ 1.05
일 본	0.3 ~ 0.16
한 국	1.29 ~ 4.7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main01.asp>

〈표 7〉 한·중·일 FTA의 산업별·국가별 영향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생산확대	의류, 농산물,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계류,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가공식품, 섬유
생산축소	자동차, 섬유, 금속	농산물, 의류, 수산물	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중·일 FTA체결 시 3국이 받는 산업별 영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1) 한국

중국과의 FTA체결 시 한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농수산업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가격 경쟁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농수산품의 비용은 한국의 1/5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수산업자들은 FTA의 체결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의 대중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가공 무역이지만 가공무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가 철폐되어 있어 여기서는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관세부담이 적은 형태로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1차 제품과 소비재를 고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높아 이는 특히 반제품과 자본재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한·일 FTA체결로 이러한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상황이 악화 할 수도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민감 부문은 특히 일반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문의 무역 불균형은 높은 보호 관세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하여 한국이 획득하는 경제이익은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2007년에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77.1%가 관세를 철폐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한·일 FTA체결 후 한국의 수출증가를 방해할 수 있다.

(2) 중국

중국의 화학, 자동차, 기계 산업은 경쟁력에서 한국·일본과 비교하면 불리한 입장에 있

다. 이러한 민감 산업은 한국·일본과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직면해야할 주요한 장벽이 되겠다.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일본의 양국에 대하여 방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입대체정책을 실행하고 거액의 투자를 석유·화학 산업에 투입하여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FTA의 체결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증가를 가속화 하여 새로 구축된 중국의 국내기업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액제품의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일부 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는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에 비해 격차가 제일 크다고 본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자동차제품의 무역적자의 크기도 대규모로 그 액수는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합작회사가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는 전체적으로 중국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의 25%를 차지하는 현지 자동차 제조회사는 보다 큰 경쟁압력을 받을 것이다. 제품의 유사성 정도가 큰 것으로부터 한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중국의 현지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하여 더욱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의 기계 산업도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 그 규모는 방대한다. 현재 중국은 기계제조업을 재생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과의 FTA체결은 국내산업, 특히는 제품의 제조를 고액제품으로 바꾸려는 기업에 대하여 많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기술적인 우위가 현저함으로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하여 일본은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지만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일본은 한국의 FTA협상의 재개에 의욕적이며 2008년 6월에 실무자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상개개의 명백한 계획은 아직 없다. 한·일 FTA로 인한 한국측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과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많은 점으로부터 2국간 FTA의 장애로 되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농업과 수산업이 일본에 대해서는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쟁력도 일본이 비교적 낮다. 중·일 간의 무역량의 크기를

고려하면 중·일 FTA의 효과는 불확실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아직 경제체제와 경제력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FTA체결에 있어서 포괄성과 질의 수준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일본의 FTA는 일반적으로 투자, 서비스, 기타 무역투자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가전산업에 대한 관세율 예상효과

한중일 3국의 가전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이미 전자제품의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 상태이고, 한국의 주요 가전제품의 수입관세율도 평균 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WTO가입 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지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한국은 10%이고 일본의 경우 0%인데 비하여 중국은 17%로 높은 수준에 있고 잠정세율도 토스터기, 커피머신, 면도기, 이발기, 반도체, 냉각식 냉장고 등 품목에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중국의 주요 가전제품의 수입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품 명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방콕협정세율	부가가치세
에어컨	15	8	13.5	17
가정용 냉장고	10	6	9	17
반도체 냉각식 가정용 냉장고	30	15		17
전기 흡수식 가정용 냉장고	15	8		17
기타 가정용 냉장고	30	15		17
가정용 식기세척기	6	6		17
가정용 세탁기	10	15	8.7	17
기타 세탁기(원심탈수기 내장)	30		24.9	17
믹서기	6	6		17
바탕 왁싱 기계	30	15		17
주방 폐기물 프로세서	20	10		17
기타 가정용 전동기구	15	15		17
면도기	15	15		17
이발기	30	15		17
전동 헤어 가위	20	12		17

품 명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방콕협정세율	부가가치세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8	8	13.5	17
전기오븐	15	8		17
전기밥솥	8	8		17
전기 프라이팬(pans)	15	8		17
전기 스토브	8	8		17
coffee maker	16	16		17
토스터	32	16		17
기타 전기기기	16	16		17
TV	30		26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포탈 <http://china.kita.net/>

일본재무성 <http://www.mofa.go.jp/mofaj/>

주 :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6%이고 일본은 전자제품의 관세를 철폐한 상태이다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 되면 한국의 가전산업의 경우 일본의 독특한 유통 구조 때문에 FTA가 체결되더라도 일본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가전 완제품보다는 이들 완제품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부품 쪽에서 일본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다.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 제품이 일본을 앞서나갈 가능성도 있으나 가전산업 및 이와 관련되는 전자부품 산업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대체로 침단 쪽으로 갈수록 일본 쪽의 경쟁우위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부품과 생산설비의 국산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특히 신 가전 부문에서 대일 의존적 성격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관세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체결로 투자 환경이 보다 개선된다면 시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 오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여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FTA체결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장벽을 공식적으로 철폐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기술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 제소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V. 한·중·일 FTA 障礙要因과 克服戰略

1. 장애요인

한·중·일 FTA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독특한 유통구조 및 유사한 수출 제품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고 날로 심화되는 공급과잉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기업의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전제품의 조립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한층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한중일 FTA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농업부문이다. 일본은 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농업부문의 노동생산량도 상당히 낮아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은 상당히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에 대한 보호도 높은 편이어서 농업부문의 문제로 한일 FTA의 추진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추진 시 한국과 일본이 농업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으면 중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한중일 3국이 농업 부문에서 일치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FTA체결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중국은 경제 개도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이다. 경제체제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높은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이지만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비록 경제발전의 현저한 차이로부터 상호보완적이고 지역협력 전망이 넓지만 경제발전 수준차이가 과도한 3국간에서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관련 국가들의 산업에 비교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상의 차이도 현저함으로 각국에서 경제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는 FTA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간 정치적 상호 신뢰도가 낮다. 한중일 FTA의 체결은 경제측면의 지역협력이지만 정치적 상호 신뢰도도 경제 협력 구역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특히 민감한 정치적 모순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국간의 정치적 상호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와 한중일 간의 해양 권익에서의 분쟁은 미래의 경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의 2차 세계 대전 당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을

한 역사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부족한 것도 한국과 중국의 일반인들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하여 3국 FTA추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 극복전략

가전산업에서의 전략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대일 수출 확대보다는 한국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산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충족을 통해 수입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제품 개발로 중국 고소득층의 수요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핵심부품 생산으로 중국 부품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각국은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들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을 둔 관세유예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부품 소재 위주의 전자 상 거래망 구축 등 유통 장벽을 우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역내 공급과잉 문제는 국가 간 재원 낭비로 이어지고 일부는 기술력이 앞서있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 가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강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기술력을 유입하여 경제 개도국을 주요시장으로 함과 동시에 선진국시장도 개발하여야한다. FTA발효 후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 중국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퇴출당할 수도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중고위 기술 산업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공평한 무역거래를 하려면 중국은 과학 기술 무역을 위주로 하는 전략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늘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3국간의 가전산업 교역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서 3국 간 협력이 필수이며 한국이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보면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호 신임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은 한중일 경제 합작을 이루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 문제,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국은 경제, 기술 교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산업부문에서 각각 취약한 부문이 있다. FTA추진 과정에서 3국

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의 농업부문과 중국의 기술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국은 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민감 부문에 대하여 기술을 육성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며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미련하여 민감 부문에 대한 개방정도를 점차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피해가 너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FTA 양허안 협상시 특별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거나 단계별로 양허안은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3국은 정부측면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단체, 기업들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 간의 상호 이해와 업무상의 왕래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3국 대학들 간의 학술회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VI. 結 論

한국, 중국, 일본의 역내 무역의 필요성은 1990년 이후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과거 15년간의 동북아 3국의 무역의존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로 3국 제조업간의 공급관계가 급속히 밀접해졌고 3국이 상호간에서 중요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의 체결은 무역장애를 없애고 역내시장을 확대시켜 3국의 경제통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 구조를 보면 수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월등히 높고 수입의 경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입총액의 28.9%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가전 관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이미 전자제품의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 상태이고 한국의 주요 가전제품의 수입관세율도 평균 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WTO가입 후 관세율을 대폭 인하 하였지만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한·중·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 되면 한국의 가전산업의 경우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 때문에 FTA가 체결되더라도 일본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찾기 힘들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관세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체결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장벽을 공식적으로 철폐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기술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 제소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국 모두 한·중·일 FTA체결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이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직면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가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독특한 유통구조 및 유사한 수출 제품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고 날로 심화되는 공급과잉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 수출·수입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기업의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전제품의 조립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한층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중일 FTA추진을 위한 전략에는 먼저 가전산업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대일 수출 확대보다는 한국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산제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충족을 통해 수입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제품 개발로 중국 고소득층의 수요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핵심부품 생산으로 중국 부품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기술력을 유입하여 경제 도상국을 주요시장으로 합과 동시에 선진국시장도 개발하여야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보면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 문제,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국은 정부측면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단체, 기업들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간의 상호 이해와 업무상의 왕래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3국 대학들 간의 학술회 등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경우, 상대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상회하여 사회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한·중·일 3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에 있어서 관세를 제외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는 다자간 체제를 통해서도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로부터 3국의 경제정책을 조화시켜 나가고 상호 무

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3국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 2011-06-25

논문 수정일 : 2011-07-20

게재확정일 : 2011-07-29

참고문헌

- 강재성 (2010).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박수 (20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세엽 (2007).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전경련.
- 김영식 (2009). “세계금융위기와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노영광 (2010). “한중일 무역구조 분석과 경제공동체로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유관영 외 (2004). “한중일 FTA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검토”, 산업연구원.
- 유동현 (2006). “한중일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 이경숙 (2009). “한중일의 자전산업 교역구조와 경쟁관계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상윤 (2005).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전경련.
- 이재기 (2005).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 이창재 (2004). “한중일 FTA협동연구 총괄보고서”, FTA 협동시리즈 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2005).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 조군 (2005). “한중일 FT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 최낙균 (2008).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胡俊芳 (2007). “中日韩自由贸易区贸易效果的实证分析”, 复旦大学出版社.
- 汪素芹 (2003). “中韩贸易发展的主要障碍与合作途径”, 世界经济研究.
- 博钧文 等 (2003). “从中日电机电器产业内贸易看两国分工的趋势”, 世界经济研究.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main01.asp>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 전국경제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index.jsp>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http://fta.mofcom.gov.cn/>
- 百度: <http://www.baidu.com/>
-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
- yahoo JAPAN: <http://www.yahoo.co>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motive Strategies of th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cused on the Electronics Industry-

Kim, Seong-Suhn* · Jin, Liang-Xi**

■ ABSTRACT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3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he promotion of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s very valuable to consider positively.

Several problems and obstacles are existing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Korea should overcome the problems such as severe competition due to Japan's unique distribution structure, non-tariff barriers and similar export products, also Korea will face the serious problem of oversupply. Elimination of tariffs is expected to lead to the increasing exports and imports toward China, but it can also bring huge damage to the less competitive companies in Korea. Also, as Japan is highly dependant on China in the assembly field of electronic product, FTA will have a problem of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to the strateg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Korea sh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instead of extending export to Japan to meet the needs of domestic consumers who favor Japan products and reduce the import. And Chinese companie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product through economy of scale. For the promotion of trade in the electronics industry, co-operation among 3 countries in the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s essential, and South Korea would have to lead the process.

Finally Korea, China and Japan would need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in terms of government,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nd companies for

* Professor, Dept. of Int'l Trade, Dankook University, sskim@dankook.ac.kr

** MA Graduate, Dept. of Int'l Trad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mutual understanding. Also, FTA promoting conferences among the universities in these countries need to be conducted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develop human resources.

Key Words : Korea, China and Japan FTA, electronics company, problems and strategies